

# 아리조나 나바호 (Navajo) 원주민 선교지 답사보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엠마오 교인들에게,

선교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으로 불리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상 여러곳에는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듣지 못하고 제약된 사회와 환경으로 기독교와 단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합니다. 선교사는 그 곳에서 생활하시면서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단기 선교는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의 증인이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동역자 이기도 합니다. 또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전할 수 있으며, 교회에 대한 선교지의 적대감을 낮추는 일도 합니다.

엠마오 교회가 2023 년에 미국내 단기 선교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대상지를 나바호 원주민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선교지에 대한 답사의 목적으로 엠마오 교인 5명(김철기, 안순미, 김경숙, 이찬원, 이용준, 호칭생략)은 5월 24일 부터 27일 까지 미국 국내 단기 선교의 대상지인 아리조나 나바호 (Navajo) 보호구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원주민 사역을 하시는 이영호 선교사의 Tuba City 에 위치한 선교센터를 방문하여 나바호 원주민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영호 선교사의 사역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영호 선교사와 함께 선교 사역중의 하나인 Tuba City 장마당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이 Tuba City 장마당은 매주 금요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나바호 원주민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 하자면, 체로키 원주민 다음으로 많은 수가 있는 원주민 부족으로서, 2010 년의 자료에 의하면 약 33만 명이 미국내에 있으며 (Wikipedia), 나바호 Reservation 지역에는 약 18만에서 20만 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이영호 선교사) 추측된다고 합니다. 나바호 Reservation 에서는 제한된 자치가 허용되고 있으며, 그 지역의 입법, 사법, 행정을 자치 정부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나바호 Reservation 전체 지역은 7만 제곱 km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나 (한반도의 약 1/3), 높은 고도와, 강한 모래 바람,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서 거주환경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답사중에 이영호선교사와 선교 사역에 관한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영호 선교사는 주어진신 능력과 특기를 이용하여 나바호 원주민들을 섬기고 계시는 바, 한의사로서 침술 시술을 통하여 관절이나, 목, 디스크 등과 같은 통증의 완화를 원주민들을 위하여 시술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있는 분들에게도

침술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마당에서 약 2년전에 LA에 있는 교회로 부터 기증받은 버스를 수리하셔서, 간이 의료장소를 마련하시고 침을 시술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장마당을 방문한 금요일(5/26)에는 기존 환자 16명과 신규 환자 17명 에 대하여 침술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원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침술을 권하고, 침술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였고, 아이들에게 성경공부 교재를 나누어 주는 일 등등을 담당하였습니다. 장마당은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데 저희가 방문한 주에는 9명의 아이들에게 성경의 내용이 있는 성경공부 교재와 문답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성인들에게도 신약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기회가 있을때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방과후 학교 선교센터가 내부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며칠전의 소식에 의하면 선교센터가 위치할 교회내부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바호 원주민 Reservation 에는 여러 교회가 있으나, 대부분은 가족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영호 선교사의 주된 사역은, 장마당 사역을 통하여 침술로 육체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고통을 치유함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이들 성경 공부 교재 배포, 방과후 학교 선교관 건립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역입니다. 방과후 학교 선교관에서 아이들에게 무술과 성경을 가르침으로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역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저희가 기도로 동역해야 할 것 입니다. 그 외에 나바호 원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교류를 넓혀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바호 원주민들은 행정을 자치적으로 하므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일들은 무척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 단기선교를 위한 제언

장마당 선교는 우리가 나바호 사람들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별히 침 시술을 그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곳의 사람들은 유럽 이주민들에 의해서 자신의 터전을 잃었고, 많은 학살과 어려움을 겪었으며, 미국정부에 의해서 보호구역으로 칭해지는 지금의 장소에 수용되었고, 1940년대에 들어서야 원하는 사람들은 자유로이 그곳을 떠날 수 있게되었습니다. 또한 강제되었던 나바호 언어 비사용, 기숙사 학교등에서의 어린이 학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고, 심지어 유아 납치등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는 많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영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해외선교지에 비해서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엠마오 교회가 나바호 원주민을 대상으로 국내선교를 한다면 2회 정도 장마당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음으로는 VBS 입니다. 그 곳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바호 원주민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긴 시간동안 예배를 보는데 비하여,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기간 중에 VBS 를 준비하여 그곳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영호 선교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선교센터 건립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입니다.